

Executive Summary

□ 일본은 왜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가?

현재 일본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 또는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2005년 전체 수출의 7.9%, 엔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FTA 교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 이유로 농업 분야의 교섭 문제와 미국과 FTA 체결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전환효과(FTA에 의한 우대조치로 高비용으로 생산된 역내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역외국의 低비용제품을 대체하는 효과)에 의한 주변국들의 피해를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일본경제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일본은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8%(1,419억 5,000만 달러)를 차지,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對美 수출 세계 4위로 이미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주요 수출 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문(특수 품목 제외)의 미국 수입 관세율은 0~4% 정도로 중국 10~37.6%, 한국 8~10%, 태국 10~80% 등 동아시아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세 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셋째, 농업개방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FTA는, 개방하지 않았을 때(2010년 기준)보다 106억 9,200만 달러~107억 7,300만 달러 정도의 국가 전체 후생 수준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일본은 분석하고 있다. 넷째, 2005년 4월 1일 발효된 일본·멕시코의 EPA(특정 2국간 또는 복수국간에 해당 지역의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실현을 위한 국경 및 국내 규제 철폐, 각종 경제제도의 조화 등 폭넓은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FTA는 EPA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에 의해 향후 일본의 각 산업별 기업이 NAFTA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이는 美日 FTA의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美日 FTA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일본의 對美 FTA 추진 전략을 볼 때, 韓美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韓美 FTA의 실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이 아닌 타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 교류 현황이나 전망,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韓美 FTA의 상대적 편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韓美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 피해 예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 피해 방어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韓美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합의로 보다 유리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가 韓美 FTA에 주는 시사점 >

일본의 FTA 현황	<p>▷ 일본은 동아시아지역 국가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EPA 또는 FTA를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 특정 2국간 또는 복수국간에 해당 지역의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실현을 위한 국경 및 국내 규제 철폐, 각종 경제제도의 조화 등 폭 넓은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FTA는 EPA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 - 싱가포르(2002년 11월 30일), 말레이시아와는 2005년 12월 13일 EPA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 <p>▷ 미국과는 정부 차원의 FTA 교섭 진행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2005년 전체 수출의 7.9%)과는 미국정부 및 경제계의 요망과 관심이 있을 뿐 민간 차원의 연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함
------------	--

미국과는 FTA 교섭을 꺼리는 일본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	실질적인 이유
	<p>▷ 농업분야 교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지지추정량=소비자 부담(내외 가격차+생산량)+납세자 부담에 의한 농가 보조 및 지불액 - 생산자지지추정량: 미국 389억 달러, EU 1,214억 달러, 일본 447억 달러 - 농산물 평균 관세: 미국 6%, EU 20%, 태국 35%, 일본 12% - 따라서 일본의 농업보호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미국과의 교섭에서 대등한 교섭 가능 -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급격한 경쟁력 상실 보다 패망 후 전업농가 육성 실패 등 내부 정책 실패가 농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임 <p>▷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주변국에 대한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싱가포르, 한국, ASEAN 4개국(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FTA 연계가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큼 - 이 경우 1995~2005년 누적 실질 GDP 1.02%p 상승, 미국과의 FTA는 동 0.77~0.99%p 상승 	<p>▷ 이미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 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8%를 차지, 중국,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세계 4위 <p>▷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철폐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 부문의 미국의 수입 관세율은 0~4%(특수품목 제외)에 불과 - 동 부문 관세율은 중국 10~37.6%, 한국 8~10, 태국 10~80 등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따라서 관세철폐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임 <p>▷ 농업개방에 의한 전체 후생수준의 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개방하지 않았을 때보다 106억 9,200만 달러~107 7,300만 달러(2010년 기준) 정도의 국가 전체 후생 수준 감소가 예상됨 <p>▷ 對멕시코 투자 확대에 의한 대체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와의 EPA 발효 결과, 일본기업들의 對멕시코 투자가 확대될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임

韓美 FTA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

시사점	<p>▷ 韓美 FTA의 상대적 편익에 대한 홍보 강화</p> <p>▷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 韓美 FTA 체결로 인한 피해 예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 피해 방어 노력이 시급</p> <p>▷ 韓美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합의로 보다 유리한 협상 전개가 가능하도록 할 것</p>	정무
-----	---	----

□ 일본은 왜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가?

1. 일본의 EPA 및 FTA 교섭 방침

○ (교섭 방침) 일본정부는 일본에 있어서의 유익한 국제 환경의 형성, 경제적 이익의 확보, 상대국 및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한 EPA 및 FTA 교섭 방침을 설정하고 있음¹⁾

- (일본에 있어서의 유익한 국제 환경의 형성)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 일본의 경제력 강화 및 정치 외교상의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WTO 등의 국제 교섭에 있어서 일본이 해당국 및 지역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경제적 이익의 확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나 투자 자유화에 의해 광공업 품, 농림수산품의 수출이나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실질적인 확대가 가능하며, EPA나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제적 불이익 해소 등 경제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상대국 및 지역의 상황) 일본 및 상대국에 있어서 자유화 곤란한 품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무역 및 투자상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WTO, EPA, FTA 체결시 맺은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 등 상대국 및 지역의 상황과 EPA 및 FTA 실현 가능성 또한 주요 교섭 방침임

< EPA와 FTA >

- (EPA의 정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는 특정 2국간 또는 복수국간에 해당 지역의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실현을 위한 국경 및 국내 규제 철폐, 각종 경제제도의 조화 등 폭 넓은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임
- (FTA와의 관계) 특정 국가나 지역간에 상품에 대한 관세나 서비스 무역의 장벽 등을 삭감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EPA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

1) 이하 日本 外務省 經濟局, '日本の經濟連携協定交渉-現状と課題', 2008年 2月 참조.

2. 일본의 EPA 및 FTA 교섭 전략

- (동아시아 중심의 FTA 및 EPA 교섭) 현재 일본은 다른 지역보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EPA 또는 FTA를 추진하고 있음
 - (교섭 현황) 일본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EPA 체결 뿐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에 대해서는 중요 부문 합의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EPA 또는 FTA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멕시코(EPA 체결)와 칠레(중요 부문 합의)를 제외한 타지역 및 국가와의 교섭은 초기 단계에 있음
 - 특히, 단일 국가로는 최대의 수출 상대국인 미국(2005년 전체 수출의 7.9% 차지, 엔 기준)과는 미국 정부 및 경제계의 요망과 관심이 있을 뿐 민간에서 막 연구를 시작한 단계에 불과함
- (동아시아 중심의 교섭 원인) 일본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 교류가 활발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EPA나 FTA를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높은 관세 장벽을 없애 타지역과의 EPA나 FTA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하고 있으며²⁾, 실제로 싱가포르와의 EPA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음
 - (일본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 지역으로 일본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최근에는 ASEAN 지역이 일본의 EPA 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함
 - 동아시아는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 지역: 2005년 기준 동아시아는 일본의 전체 무역 규모(122조 5,418억 엔)의 44.7%(54조 7,159억 엔)로 일본의 무역 상대국 및 지역 중 가장 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
 - ASEAN 지역 급부상: 일본은 ASEAN에 대한 최대 투자지역이며, 양지역 간 무역 규모 또한 일본 전체 무역 규모의 13.1%에 달하는 등 일본에 있어서의 ASEAN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이 지역이 일본의 EPA 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함³⁾

2) 일본 외무성 정의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중국,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말함. 日本 外務省, 'わが国のFTA戦略', 2002年 10月.

< 일본의 국가 및 지역별 교역 현황(2005년) >

구 분		금액(백만 엔)	비율(%)
미 국		21,878,328	17.9
동아시아	소 계	54,715,923	44.7
	중 국	20,806,695	17.0
	홍 콩	4,141,920	3.4
	한 국	7,838,838	6.4
	기 타	21,928,470	17.9
ASEAN		16,080,506	13.1
기 타		34,062,307	27.8
총 계		122,541,82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세계 각국 및 지역의 對ASEAN 투자 현황(1995~2003년 누계) >

구분	일본	EU	미국	대만	한국	호주	홍콩	중국	인도	기타
구성비	21.2%	16.8%	14.2%	6.2%	3.6%	2.0%	2.0%	1.0%	0.3%	32.7%

자료: ASEAN 사무국; 日本 外務省 經濟部, '日本の經濟連携協定交渉-現状と課題', 2006年 2月.

- (높은 관세 철폐에 의한 경제적 효과) 말레이시아(전상품 14.5%), 필리핀(동 25.6%), 태국(동 25.8%), 인도네시아(동 37.5%) 등 동아시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높은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의 입장에서 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9) 특히 이 기간 동안 일본의 對동아시아 투자 가운데 54.5%가 ASEAN에 집중되고 있음. 日本 外務省 經濟部, 2008年 2月. 동상서.

- **일본에 대한 경제적 효과:** 일본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을 포함한 중국, 한국과 FTA를 맺을 경우 관세철폐 등의 효과로 1995년~2010년 누적 실질 GDP 성장률이 1.02%p(농업 비개방시)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⁴⁾

< 동아시아지역과 타지역간 관세율 비교 >

(단위: %)

구 분	일본	EU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전 상품	2.9	4.1	10.0	16.1	14.5	25.6	25.8	37.5
비농산품	2.3	3.9	9.1	10.2	14.9	23.4	24.2	36.0

자료: 日本 外務省, 'わが国のFTA戦略', 2002年 10月.

주: 수치는 단순평균을 나타냄.

- (싱가포르와의 EPA 체결 효과) 일본과 싱가포르 EPA는 2002년 11월 30일 발효되었으며,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함

- **무역 규모 증가:** 2003년과 2004년 양국간 무역액을 비교하면 무역 총액은 2조 3,446억 엔에서 2조 6,250억 엔으로 12%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對싱가포르 수출액은 1조 7,158조 엔에서 1조 9,449조 엔으로 13%가 증가, 對싱가포르 수입액은 6,288억 엔에서 6,802억 엔으로 8% 증가함
- **투자 증가:** 투자 총액은 2002년 1,154억 엔에서 2003년 1,850억 엔으로 62% 증가하였으며 특히 싱가포르의 對日 투자가 228억 엔에서 1,486억 엔으로 급증함

4) 堤雅彦, 清田耕造, '日本を巡る自由貿易協定の効果-CBGモデルによる分析', JCER Discussion Paper, No.74,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02年 2月.

3. 일본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지 않는 원인

○ (표면적인 이유) 농업 분야의 교섭 문제와 미국과 EPA 또는 FTA 체결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들고 있음

- (농업 분야의 교섭 문제) 자국의 농업 분야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EPA 또는 FTA를 꺼리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농업 보호 정책의 실패가 원인임
 - **높지 않은 일본의 농업 보호:** 농업보호의 지표로 OECD가 개발한 '생산자 지지추정량'을 보면 미국이 389억 달러, EU가 1,214억 달러, 일본이 447억 달러이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2%로 미국(6%) 보다는 높지만 EU(20%), 태국(35%)보다 낮은 실정으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임⁵⁾
 - **소비자 부담 전가형 농업 정책:** 패망 후 일본의 농업정책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산물 생산 비용을 낮추는 품종 개량, 농지집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전업농가 육성에 실패하는 등 결국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또 소비자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⁶⁾
-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주변국에 대한 피해) 양국간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외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美日 FTA 추진은 꺼려하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과의 FTA보다 동아시아지역과의 FTA 또는 EPA 체결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임⁷⁾
 - 일본은 싱가포르, 한국, ASEAN 4개국 및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FTA 연계의 경제적 효과(1995~2010년 누적 실질 GDP 1.02%p 상승, 농업 제외)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의한 경제적 효과(동 0.77~0.99%p)보다 큼⁸⁾

5) 생산자지지추정량이란 소비자부담(내외가격차×생산량)에 납세자 부담에 의한 농가에의 보조 및 지불액을 더한 것임. 山下一仁, 'FTA・WTO交渉と日本の農政改革', 「技術と普及」, 経済産業研究所, 2005年 4月号.

6) 패망 후 일본의 농업정책은 소작농 해방과 농업의 영세성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가 있었음. 소작농 해방의 경우는 농지개혁에 의해 달성되었음. 그러나 농업의 영세성 개선의 경우, 1961년에 실시된 농업기본법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의 확대 및 비용 절감에 의한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목표들 내세우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들 실현하는 정책은 쌀 가격 인상에 있었음. 이로 인해 농업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쌀 농작에 집중되었고 과잉 생산된 쌀 공급 조정이 30년 이상이나 지속되는 한편 보리 등의 생산이 감소하여 식료품 자급률이 1960년 79%에서 최근 40%대로 떨어지는 등 농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함. 山下一仁, 2005年, 동상서.

7) 日本 外務省, 2002年 10月, 동상서 참조.

< 일본의 FTA가 역외 국가 또는 지역의 누적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

(단위: %p)

구 분	S1	S2	S3	S4	S5	S6	S7	S8	S9
오세아니아	0.00	0.02	0.01	0.03	0.35	0.14	0.00	-0.01	0.21
일본	0.07	0.14	0.10	0.18	1.02	-0.05	0.99	0.77	0.78
한국	0.00	6.33	-0.01	5.89	9.05	-0.16	-0.12	-0.13	-0.28
인도네시아	0.02	0.08	0.04	0.08	13.36	3.16	-0.09	-0.11	-0.10
말레이시아	0.10	0.21	0.18	0.39	18.52	7.24	-0.46	-0.48	-0.48
필리핀	0.00	0.01	-0.01	-0.01	8.43	2.69	0.06	0.07	-0.26
싱가포르	5.76	7.23	7.04	9.77	16.85	10.40	-0.27	-0.28	0.13
태국	0.00	-0.01	0.00	-0.01	18.44	6.03	-0.02	-0.04	-0.10
중국	0.01	-0.03	0.00	-0.03	27.69	9.17	-0.20	-0.22	24.94
중국+홍콩	0.00	0.06	0.02	0.06	-0.20	-6.68	0.16	0.16	-1.80
대만	0.01	-0.08	-0.01	-0.09	-2.56	-0.92	-0.23	-0.24	-1.64
기타 아시아	0.00	0.03	0.01	0.03	0.07	0.00	-0.02	-0.02	0.27
캐나다	0.00	0.00	0.00	0.01	0.33	0.19	-0.32	-0.31	0.12
미국	0.00	0.01	0.01	0.02	0.07	0.00	0.35	0.41	0.03
멕시코	0.00	0.00	4.20	4.22	-0.02	0.01	-0.02	-0.02	0.01
중남미	0.01	0.03	0.02	0.05	0.32	0.07	0.02	0.02	0.25
EU	0.00	0.00	0.00	0.00	-0.01	0.02	-0.02	-0.02	0.01
구소련 및 동구권	0.00	0.00	0.00	0.01	0.11	0.08	-0.03	-0.03	0.07
기타 세계	0.00	0.03	0.01	0.03	0.28	0.02	0.03	0.03	0.22

자료: 堤雅彦, 清田耕造, '日本を巡る自由貿易協定の効果-CEGモデルによる分析', *JCER Discussion Paper*, No.74,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02年 2月.

주: 1. 농업분야를 제외한 추정 결과로, S1은 싱가포르, S2는 싱가포르와 한국, S3는 싱가포르와 멕시코, S4는 싱가포르, 멕시코 및 한국, S5는 싱가포르, 한국, ASEAN 4개국, 및 홍콩을 포함한 중국, S7과 S8는 미국, S9은 중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했을 경우이며, S6는 일본을 제외한 싱가포르, ASEAN 4개국, 및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FTA 체결을 가정함. 단 S7과 S8은 각각 노동 이동에 관한 가정이 서로 다름.

2. 추정기간은 1995~2010년임.

8) 堤雅彦, 清田耕造, 2002年 2月. 동상서 참조.

○ (실질적인 이유) 일본은 이미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미한 미국 관세 철폐 효과, 농수산물 완전 개방에 의한 후생수준 하락, 일본-멕시코 EPA 체결에 따르는 대체효과 등이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EPA나 FTA를 기피하는 실질적인 이유로 볼 수 있음

- (對美 수출 세계 4위인 일본) 일본은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8%(1,419억 5,000만 달러)를 차지,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對美 수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지역명	2004년				2005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1	캐나다	187,713	23%	259,807	17%	211,420	23%	291,943	17%
2	중국	34,721	4%	210,526	14%	41,837	5%	259,838	15%
3	멕시코	110,775	14%	157,821	10%	120,049	13%	172,485	10%
4	일본	54,400	7%	133,339	9%	55,410	6%	141,950	8%
5	독일	31,381	4%	79,117	5%	34,149	4%	86,938	5%
6	영국	35,960	4%	47,677	3%	38,629	4%	52,380	3%
7	한국	26,333	3%	47,814	3%	27,670	3%	45,523	3%
8	프랑스	21,557	3%	32,619	2%	22,538	2%	34,774	2%
9	말레이시아	10,897	1%	29,051	2%	10,451	1%	34,676	2%
10	이태리	10,719	1%	29,408	2%	11,541	1%	32,419	2%
11	네덜란드	24,286	3%	13,175	1%	26,496	3%	15,503	1%
12	베네수엘라	4,782	1%	26,316	2%	6,408	1%	35,292	2%
13	브라질	13,863	2%	22,734	1%	15,346	2%	26,221	2%
14	아일랜드	8,166	1%	27,569	2%	9,335	1%	28,770	2%
15	싱가포르	19,601	2%	15,595	1%	20,647	2%	15,388	1%
16	사우디	5,245	1%	22,502	1%	6,830	1%	28,966	2%
17	벨기에	16,877	2%	12,812	1%	18,605	2%	13,399	1%
18	태국	6,363	1%	18,646	1%	7,233	1%	21,035	1%
19	인도	6,095	1%	16,437	1%	7,958	1%	19,875	1%
20	이스라엘	9,198	1%	14,790	1%	9,732	1%	17,129	1%
	기타	177,549	22%	307,715	20%	201,981	22%	358,009	21%
	전체	816,481	100%	1,525,470	100%	904,265	100%	1,732,513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미한 관세 철폐 효과) 일본의 주요 수출 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문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낮아 관세 철폐에 의한 무역창출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진 경제권인 EU나 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과의 EPA 또는 FTA가 일본에게 유리함
- 미국의 낮은 관세: 특수 품목을 제외한 미국의 자동차 및 가전 부문의 수입 관세율은 0~4% 정도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경우 매우 낮은 수준임
- 高관세율의 동아시아 지역: 한편 同분야에 대해 중국은 10~37.6%, 한국은 8~10%, 태국은 10~80% 등으로 아직 高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는 이들 지역과의 EPA 또는 FTA가 훨씬 유리함

< 주요국 및 지역의 자동차 및 가전 수입 관세율 >

구분	일본	미국	EU	중국	한국	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러시아
승용차	0	2.5	10	34.2~37.6	8	80	5~15	30	35	20~25
트럭	0	25	10~22	15~29.2	10	40	5	20	35	5~15
버스	0	2.0	10~16	29.2~32.5	10	40	5	20	35	10~20
차체	0	2.5~4	4.5	22.9~29.3	8	40~80	5~15	20	35	15
자동차 부품	0	0~2.5	3~4.5	10~22.9	8	10~30	0~15	20	0~18	5~15
실내 에어컨	0	0~2.2	2.2~2.7	15	8	30	5	20	14~20	15
냉동냉장고	0	0	1.9	15	8	30	5	20	20	20
전자동 세탁기	0	1.4	3	14.2	8	30	5	20	20	15
컬러 TV	0	0~5	14	30	8	20	5	20	20	20
VTR	0	0	14	30	8	20	0	20	20	15

자료: World Tariff Database Online; 信金中央金庫総合研究所, '日本のFTAの現状と課題', アジア業務室情報 Vol.37, 2005年 4月 6日.

주: 특수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함.

- (농업개방에 의한 후생수준 하락) 만약 일본이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 농수산 부문, 건설 부문, 정부 및 비영리 서비스 분야에서의 생산량 감소 및 자본 스톱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후생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큼
- 후생수준 하락: 농업개방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FTA는, 개방하지 않았을 때(2010년 기준)보다 106억 9,200만 달러~107억 7,300만 달러 정도의 후생수준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음⁹⁾
- (멕시코와의 EPA에 의한 대체 효과) 일본·멕시코의 EPA는 2005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는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뿐 아니라 美日 EPA 대체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음
- 무역 규모의 급증: EPA 발효 후 2005년 4월~12월간 무역 동향(전년 동기 대비)을 보면 일본의 對멕시코 수출은 4,569억 엔에서 6,295억 엔으로 37.8% 증가, 멕시코의 對日 수출은 1,726억 엔에서 2,131억 엔으로 23.5% 증가하여 양국간 무역 총액은 6,259억 엔에서 8,426억 엔으로 33.9% 증가함
- 자동차 관련 기업의 對멕시코 투자 증가: 혼다(2004년 11월 30일)와 마츠다(2004년 12월 6일)의 멕시코 현지 판매법인 설립, 토요다의 멕시코 공장 개소(2005년 2월 1일), 브리지스톤 미국법인의 멕시코 新공장 기공(2005년 4월 26일) 등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의 對멕시코 투자가 급증함
- 대체효과 발생: 향후 일본의 각 산업별 기업들이 NAFTA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이는 美日 EPA나 FTA의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9) 이상 堤雅彦, 清田耕造, 2002년 2월, 동상서.

4. 韓美 FTA 체결에 있어서의 시사점

○ (韓美 FTA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홍보 강화) 정부는 미국이 아닌 타국가나 지역과의 경제 교류 현황이나 韓美 FTA에 대한

- (단계적인 FTA 교섭 필요) 정부는 미국이 아닌 타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 교류 현황이나 전망,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韓美 FTA의 상대적 편익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FTA 교섭 우선 대상국 또는 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미국이 자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EPA나 FTA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경제적 편익 분석을 통해 교섭 최우선 순위로 ASEAN과 동아시아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미국과의 FTA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코이즈미 일본 수상은 지난 2005년 10월 19일 국회에서 '美日 FTA 교섭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 주력할 것임을 주장하는 등 FTA에서도 일본의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임¹⁰⁾

○ (피해산업 대응책 마련) 미국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약한 농업, 서비스 분야 등은 韓美 FTA가 타결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으로, 이 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선제적 방어가 필요함

- (피해산업 대응책 마련을 통한 선제적 방어 추진) 정부는 韓美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 피해 예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해 韓美 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노력이 시급함

10) 라이브ドア 뉴스, http://news.livedoor.com/webapp/journal/cid_1447248/detail.

- 공격형 농업 정책으로의 전환: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5년 3월 22일 소비자 중시의 식료 공급 및 소비시스템 확립, 바이오 기술 등을 이용한 농업 기술개발 추진,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촉진 등에 관한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격형 농업 정책을 전환을 꾀하고 있음¹¹⁾

○ (정부와 국민의 정보 공유) 韓美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합의로 한국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과의 논의 및 합의 도출) 韓美 FTA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韓美 FTA 교섭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 공유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적인 논의가 결핍되고 합의 도출이 어려워 향후 FTA 체결에 따르는 진통이 예상됨

- 따라서 정부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11) 자세한 내용은 日本 農林水産省, '21世紀新の農政の推進について-攻めの農政への轉換', 2005년을 참조함 것.

< 참고: FTA에 의한 경제 효과 >

1. **정태적 효과(Static Effect):** FTA 체결국간 관세철폐나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의해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음
- **무역창출효과:** FTA 체결국간 관세철폐에 의해 무역이 확대되는 경제 효과로, FTA 이전까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던 제품이 역내국으로부터 수입재로 대체됨에 따라 확대되는 효과
 - **무역전환효과:** FTA에 의한 우대조치로 高비용으로 생산된 역내국 제품의 상대적 가격 하락으로 역외국의 低비용제품을 대체 하는 효과를 의미
 - 원래 수입처는 생산성이 높은 역외국이어야 하나 관세 우대조치로 인해 역내국으로 수입처가 이전되는 효과
2. **동태적효과(Dynamic Effect):** 정태적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생산성 상승이나 자본축적 등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로 생산성상승효과와 자본축적현상으로 나누어짐
- **생산성상승효과:** 이 효과는 다시 4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역내무역규모의 확대로 다양한 기업에 대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시장확대효과’ 둘째, 직접투자의 증가에 의해 외자기업이 역내국에 신규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촉진효과’ 셋째, 역내 타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등에 의해 기술전파가 촉진되어 얻어지는 ‘기술확산효과’ 넷째, FTA 체결국간의 제도비교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제도혁신효과’가 생산성상승효과를 낳음
 - **자본축적효과:** FTA 체결국간에 확대되는 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데 정태적인 효과에 의해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어 역내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고조됨으로써, 역내국에의 직접투자 유입이 촉진되어 자본축적이 가속됨으로써 경제성장에 공헌하게 됨

이부형 연구위원(3669-4011, lbh@hri.co.kr)